

**텔레비전 드라마에 묘사된 성역할의 전도(reverse)와 그 함의:
남성 전업주부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최현주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조교수)

1. 서론

대중문화물과 남녀 성역할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는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영화, 광고,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물에서 남성들은 독립적이고 권위적인 반면 여성들은 유약하고 의존적으로 묘사되고, 직업에 있어서도 남성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반면 여성들은 전업주부이거나 단순사무직 등 몇몇 제한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문화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등하게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여성들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미디어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고정적인 관념을 주입한다고 끊임없이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대중매체에서 비쳐지는 여성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이다. 대중매체의 남녀 성역할 묘사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남녀 성역할을 바꾸어 묘사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간간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인식되던 자리에 여성을 가져다 놓거나, 여성의 자리에 남성을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영화 <조폭마누라>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세계로 인식되어진 조직 폭력배의 세계에 여성을 주인공인 중간보스로 설정한 코믹한 영화이다. 그동안 폭력의 대상이었던 여성을 폭력의 주체로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을 강한 캐릭터로, 남성을 연약한 캐릭터로 설정함으로써, 남녀 역할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방송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SBS방송의 ; 방. 인 주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말 그대로 아내와 남편의 자리 바꾸기를 통해 색다른 쾌감을 주었던 드라마다.

이와 같이 고정적인 남녀 성역할을 뒤집어서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 뒤집기가 성역할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역할뒤집기를 희화화시켜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로 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역할을 전도(reverse)한 텔레비전 드라마들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던 ‘주부’의 자리에 남성을 갖다놓은 드라마를 선별하여, 이들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남성 전업주부의 이야기가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성 전업주부의 이미지 특성과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여, 그러한 이미지와 내러티브 구조가 생산해내는 함의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대중매체 속의 성역할 왜곡에 관한 연구 경향

그 동안 대중매체와 성역할 왜곡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기는 했지만, 이들의 연구는 주로 대중매체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에 치중해 왔다. 서구의 경우, 1960년대 후반 페미니즘이 사회운동의 일부분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대중매체 등을 통해 표상되는 여성이미지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민주민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여성운동도 함께 성장하게 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김명혜·김훈순, 1996).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연구는 남녀 이미지의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성은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인 반면, 여성은 의존적이고 감성적인 존재(Tedesco, 1974)이고,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역할비중에 있어서도 남성은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여성은 보조역에 한정되어 있다(McNeil, 1975)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 남성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이고, 직업 여성이 등장한다고 해도 이들의 대다수는 사무직이나 판매직과 같은 비전문직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Seggar, 1975). 즉, 여성들의 이미지가 남성에 비해 비전문직, 사적 영역에서 묘사되고 있으며, 성격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덜 성숙하고 비합리적이어서 다소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Lichter, Lichter & Rothman, 1986 - 김선남 외,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20여년이 지난 1990년대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를 내용분석한 시그노리엘리 등(Signorielli & Kahlenberg, 2001)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훨씬 낮게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통계(1997 US Census)와 비교해 볼 때, 현실에서는 여성의 54.6%가 화이트칼라의 직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여성은 12.3%만이 화이트칼라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양문희·강형철, 2005에서 재인용).

한국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 이미지의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묘사된 여성상을 분석한 남명자(1984)와 송유재(1990)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들 드라마에 묘사된 여성은 가족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는 전통적으로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5년(김명혜 & 김훈순, 1996)과 2001년(이수연 & 김양희, 2001) 방영된 드라마의 내용분석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묘사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의 드라마인 경우
여 적으로 1

질서를 강화시키도록 정치적으로 역할이 배정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수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여성이미지를 수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양정혜, 2001; 이오현, 2001; 김선남 외,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대중문화물의 내용적인 면에서 여성이미지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그 표현형식에 있어서 여성이 의미화되는 방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 수용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고찰되어져 왔다. 즉, 여성들의 이미지가 남성에 비해 소극적, 비전문적, 사적 영역에서 묘사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이 현실에서 보다 적게 등장하는 과소대표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대중매체에 비취지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이러한 이미지가 남성들의 가부장제 질서를 어떻게 공고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등장하였다.

그 동안 대중매체와 성역할 왜곡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기는 했지만, 이들의 연구는 주로 대중매체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여성이미지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남성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이미지 못지않게 남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되고, 이들이 어떻게 가부장제도에 기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대중매체에서 남성에 대한 묘사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여성들의 고유한 영역에 남성을 위치시키는 드라마들이 등장함으로써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남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배가된다. 여성의 자리에 남성을 위치시킴으로서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을 타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위에서 지적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남녀 성역할이 전도(reverse)된 드라마들 가운데 남성을 전업주부의 자리에 위치시킨 드라마를 선별하여, 이들 드라마에서 남성 전업주부의 이미지와 그 아내인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묘사가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남성 전업주부를 등장시킨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여, 그러한 내러티브 구조가 생산해내는 함의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에서 2000년 이후에 방송한 드라마들 가운데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온 ‘주부’의 역할에 남성을 위치시킨 드라마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남성 전업주부의 이미지와 그 아내인 여성의 이미지 특성은 무엇이며, 그 이미지가 내포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는 어떠한지, 그러한 내러티브 구조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7년간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에서 방송한 드라마들 가운데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드라마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선정을 위해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드라마의 기획의도, 줄거리, 등장인물 등의 정보를 토대로 남성 전업주부가 주연 또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들을 선별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방송된 드라마 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드라마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각 방송사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을 고려해 볼 때, 홈페이지 정보를 통한 분석대상 선별로 인해 배제되는 드라마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진다.

기간을 2000년부터로 한정한 이유는 2000년 이전에 방송된 드라마의 경우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드라마에서 남성 전업주부가 화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아줌마’라는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성 전업주부의 이미지 특성과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남성 전업주부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남성 전업주부의 능력, 성격(소심/대범), 성향(여성적/남성적), 남편형(가부장형/자상형/주눅형), 그리고 가사일의 적성여부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둘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성 전업주부의 아내로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내의 능력, 성격(평범/화통), 성향(여성적/남성적), 아내형(공주형/친구형/억센형), 그리고 가사일의 적성여부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셋째,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토도로프(1977)가 고안해 낸 ‘시퀀스’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토도로프의 시퀀스 분석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를 거쳐 어떻게 종결되는지, 즉 사건의 전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이야기 구조가 갖은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도로프의 모델이 제시하듯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조화상태, 안정상태에서 시작하고, 안정상태가 깨지면서 혼란과 갈등 속에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힘에 의해 다시 안정을 회복하게 된다. 토도로프는 이야기의 도입부와 종결부에 존재하는 두 안정 상태의 속성을 비교하고, 안정을 혼란시키거나 혼란에서 다시 안정을 찾아주는 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그 이야기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심훈, 2005).

넷째,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내러티브 구조 분석과 남녀 등장인물들의 이미지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성 전업주부를 이야기의 전면에 내세우는 드라마들이 남녀 성역할에 대하여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4. 연구결과

1)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드라마

2000년 이후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한 드라마는 총 7편이다. 각 드라마를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MBC 월화드라마 <아줌마> (2000.9.18 ~ 2001.2.28)

국내에서 남자 주부가 화제로 등장한 건 2000년 방송된 MBC드라마 <아줌마>부터라고 한다. 이 드라마에서 이렇다할 직업이 없는 박재하가 대학교수인 한지원에게 아이 키우고 살림하겠다고 결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는 가부장적 집안의 순종적인 아내가 지식인 남편의 위선과 외도에 더 이상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이야기로,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는 메인 플롯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엮여지는 하나의 부수적인 이야기로 등장한다.

(2) KBS1TV 일일드라마 <사랑은 이런거야> (2002.1.9 ~ 2002.6.28)

대부분의 일일연속극이 그러하듯이 <사랑은 이런거야> 또한 가족의 사랑, 갈등, 그리고 가족사랑의 회복을 그리고 있다. 차정남, 이정자 부부의 첫째 아들인 차상범은 출판사에 다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특수분장사인 아내 대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선다. 차상범은 남자 전업주부가 일상에서 느끼는 보람과 아픔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 드라마에서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는 일일연속극이 가지는 여러 가닥의 플롯 중의 하나를 형성한다.

(3) MBC 설날특집드라마 <가화만사성> (2002.2.13)

같은 회사 동료인 한수와 미혜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둘 중 한 사람이 사표를 써야하는 상황에서 미혜의 작전으로 남편인 한수가 사표를 쓰게 된다. 한수는 집안 일 하는 데 보람을 느끼며 쿠키학원까지 나간다. 이에 아내와 장인이 다시 취직할 것을 종용하며 구박하지만, 결국 한수가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남성 전업주부의 이야기가 메인 플롯으로 펼쳐진다.

(4) MBC 수목드라마 <앞집 여자> (2003.7.16 ~ 2003.8.21)

강북 중산층 아파트촌의 평범한 30대 부부 세 쌍의 결혼생활과 외도를 통해 '결혼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드라마다. 이들 중 이봉섭 부부가 성역할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봉섭은 퇴출은행원으로 미용실 원장인 아내 대신 요리하고 청소한다.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는 이야기의 주축이 되는 3가정의 이야기 중 하나로 엮여지지만, 세 부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5) SBS 월화드라마 <불량주부> (2005.3.21. ~2005.5.17) 총 18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집안 살림을 떠맡은 남편과, 남편 대신 사회에 뛰어든 아내가 서로의 '역할 바꾸기'를 통해 살림과 직장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남성 전업주부의 이야기가 메인 플롯을 형성한다.

(6) MBC 월화드라마 <궁> (2006.1.11 ~ 2006.3.30)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는 가정하에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궁에 사는 황태자 신과 21세기의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에 살던 세자빈 채경의 사랑에 관한 환타지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에서 세자빈 채경의 아버지는 사업실패이후 전업주부로 집에 있고, 채경의 어머니가 보험설계사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황태자와 세자빈의 사랑이야기에 부수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7) KBS 일일드라마 <열아홉순정> (2006.5.22 ~ 2007.1.12)

사랑에 조건이 앞서는 시대지만, 연변아가씨 국화를 통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열아홉 순정>에서 고광만은 처가댁에 얹혀사는 사위로 나온다. 사법고시에 몇 번

을 낙방 한 후 천하 백수로 지내면서 식구들의 온갖 핍박을 받다가 자신의 적성과 꼭 맞는 천직을 찾았다며 기뻐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업주부’인 것이다. 첨단통신회사의 기획실 이사인 윤후와 연변아가씨 국화의 사랑이야기가 메인 플롯이고,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는 부수적으로 등장한다.

이상 7편의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드라마

| 번호 | 드라마 타이틀 | 방송국 | 방송년도 | 남성 전업주부의 극중 역할비중 |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 |
|----|----------|-----|------|------------------|----------------------|
| 1 | 아줌마 | MBC | 2000 | 조연 | 부수적 이야기 |
| 2 | 사랑은 이런거야 | KBS | 2002 | 주연 (복수) | 서브- 플롯 ¹⁾ |
| 3 | 가화만사성 | MBC | 2002 | 주연 (단수) | 메인 플롯 |
| 4 | 앞집여자 | MBC | 2003 | 주연 (복수) | 서브- 플롯 |
| 5 | 불량주부 | SBS | 2005 | 주연 (단수) | 메인 플롯 |
| 6 | 궁 | MBC | 2006 | 조연 | 부수적 이야기 |
| 7 | 열아홉순정 | KBS | 2006 | 조연 | 부수적 이야기 |

매년 지상파 방송3사인 KBS, MBC, SBS를 통해 무수히 많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난 7년간 방송3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등장시킨 드라마는 겨우 7편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 남성 전업주부가 조연으로 등장해 전체 이야기 전개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3편이고, 남성 전업주부가 주연으로 등장하지만 여러 주연들 중의 하나이어서 몇 가지 주된 이야기들 중의 하나인 경우가 2편이다.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가 단독으로 메인 플롯을 형성하는 드라마는 단 2편뿐이다.

2) 드라마에서의 남성 전업주부 이미지 특성과 그 함의

각 드라마에서 묘사된 남성 전업주부의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능력, 성격, 성향, 남편형, 그리고 가사일의 적성여부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표 2> 드라마에서 묘사된 남성 전업주부 이미지 분석

| 번호 | 드라마 타이틀 | 능력 | 성격 | 성향 | 가사일의 적성여부 | 남편형 |
|----|----------|----|----|-----|-----------|------|
| 1 | 아줌마 | 무능 | 소심 | 여성적 | 맞다 | 자상형 |
| 2 | 사랑은 이런거야 | - | 소심 | 여성적 | 맞다 | 자상형 |
| 3 | 가화만사성 | - | 소심 | 여성적 | 맞다 | 자상형 |
| 4 | 앞집여자 | 무능 | 소심 | 여성적 | 맞다 | 주눅형 |
| 5 | 불량주부 | 무능 | 대범 | 남성적 | 안맞다 | 가부장형 |
| 6 | 궁 | 무능 | 소심 | 여성적 | 맞다 | 자상형 |
| 7 | 열아홉순정 | 무능 | 소심 | 여성적 | 맞다 | 자상형 |

분석결과,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드라마에서 전업주부로 등장하는 남성은 모두 무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성격에 있어서는 대부분 소심하고 여성적이며 요리와 청소와 같은 가사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전업주부가 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2005년 방송

1) 극이나 소설에서 부차적 플롯을 일컫는다.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심 플롯과 병행하거나 엇갈리며 흥미를 더해주어 작품의 전체적인 효과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된 <불량주부>의 경우, 소심하다기보다는 대범하고 털털한 마초같은 남성적인 성격의 주인공이 주부의 일이 전혀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업 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불량주부에서 프로주부로 거듭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자리에 남성을 가져다 놓기는 하지만, 전업주부인 남성들은 대부분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살림하는 남자 = 여성적’인 설정이 많다보니 이러한 등식이 고정관념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인 주부의 역할을 남성이 하는 것은 무능하고 여성적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또 다른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가사일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성역할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 전업주부의 아내 이미지와 그 함의

남성 전업주부가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그 아내로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능력, 성격, 성향, 아내형, 그리고 가사일의 적성여부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표 3> 드라마에서 묘사된 남성 전업주부의 아내이미지

| 번호 | 드라마 타이틀 | 직업 | 능력 | 성격 | 성향 | 가사일 | 아내형 |
|----|----------|--------|----|----|-----|-------|-----|
| 1 | 아줌마 | 교수 | 유능 | 평범 | 여성적 | 잘 못한다 | 공주형 |
| 2 | 사랑은 이런거야 | 특수분장사 | 유능 | 평범 | 여성적 | 잘 못한다 | 공주형 |
| 3 | 가화만사성 | 회사 | 유능 | 평범 | 여성적 | - | 친구형 |
| 4 | 앞집여자 | 미용실 원장 | 유능 | 화통 | 남성적 | - | 억센형 |
| 5 | 불량주부 | 회사 | 유능 | 평범 | 여성적 | 잘한다 | 친구형 |
| 6 | 궁 | 보험설계사 | - | 평범 | 여성적 | - | 온순형 |
| 7 | 열아홉순정 | 회사 | - | 평범 | 여성적 | 잘한다 | 친구형 |

분석결과,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드라마에서 남성 전업주부의 아내들은 대체로 유능하고 여성적인 평범한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초기에 등장한 <아줌마>나 <사랑은 이런거야>의 경우, 아내가 공주형(철부지형)으로 요리와 청소와 같은 가사일을 잘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요즘 방송된 <불량주부>나 <열아홉순정> 등에서는 가사일을 잘 하며 남편에게 온순하면서도 친구같은 아내가 남편의 실직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2003년 방송된 <앞집여자>의 경우는 모든 면에서 반대로 설정되어 있다. 활달하고 씩씩한 남성적인 성격의 아내가 등장한다. 섹스의 주도권도 아내가 쥐고 있고, 폭력도 아내가 행사하는 억센형의 아내인 것이다.

남편이 가정에서 일하고 아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초창기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능력은 있지만 가사처리 능력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철부지 또는 공주형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때로는 남성적이고 억센형으로 묘사된 적도 있다. 하지만 요즘들어 철이 없거나 억세서가 아니라, 그리고 가정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가정일과 사회일의 분담차원에서 남편에게 가사일을 맡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십여년간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여성이미지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여러 연구자 및 비평가들의 노고의 덕이라 판단되어진다.

4) 내러티브 구조분석

내러티브 구조분석은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가 메인 플롯(main plot)과 서브 플롯

(sub-plot)을 형성하는 드라마 <사랑은 이런거야> <가화만사성> <앞집여자> <불량주부> 4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남성 전업주부가 이야기 전개에 부수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드라마의 경우,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가 단독으로 메인 플롯을 형성하는 드라마인 <가화만사성>²⁾의 내러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수와 미혜 가정의 안정상태가 남편의 실직으로 깨어지게 되고, 남편은 가사일에 보람을 느끼며 집안일을 하고 쿠키학원까지 다니지만, 아내와 장인의 구박으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다가 장인을 잘 간호하여 인정받게 되며, 장인과 함께 시작한 쿠키사업이 성공하면서 다시 안정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즉, 실직한 남편이 가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되다가 결국 남성 전업주부로 인정받고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도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다음으로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가 단독으로 메인 플롯을 형성한 또 다른 드라마인 <불량주부>의 내러티브 구조를 살펴보자. 수한과 미나의 가정은 남편의 실직으로 안정의 상태가 깨어지게 되고, 남편이 전업주부로 분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발하게 되고 불안정의 상태가 지속된다. 마지막에 남편이 전업주부로 자리를 잡고, 새로이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면서 수한-미나의 가정은 다시 안정의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앞집 여자>에서는 성역할을 바꾸어 수행하고 있는 봉섭과 수미부부 이야기³⁾에 한정해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봉섭-수미의 가정은 남편이 퇴출은행원으로 이미 실직하여 전업주부인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의 안정상태는 남편의 실직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로 긴장상태가 지속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두들겨 맞게 되고 불륜관계의 여성이 전문사기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다시 안정상태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런거야>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은 이런거야>는 여러 가정들의 이야기로 전체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전형적인 일일연속극이다. 남성 전업주부 이야기는 이러한 여러 가정 이야기들 중 한 가정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2) 같은 회사 동료인 한수(강성민 분)와 미혜(허영란 분) 부부는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둘 중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내 미혜의 작전으로 인해 남편인 한수가 사표를 쓰게 된다. 남편인 한수는 가사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가사일에 전념하게 되지만, 해병대 출신의 장인과 아내는 한수에게 취직할 것을 종용하며 구박한다. 그러나 한수는 가족의 핍박 속에서도 꾸준히 쿠키 굽는 기술을 배우며 집안 일을 한다. 그러던 어느날, 미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고, 한수는 먹을 것을 싸들고 아이를 업은 채 회사로 찾아가는다. 이 모습을 창피하게 생각한 미혜는 한수에게 따지고, 실의에 빠진 한수는 가출을 해버린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은 해병대 후배들을 동원하여 한수 길들이기에 나서지만, 장모인 영실은 오히려 한수를 위로한다. 한수를 훈련시키고 집으로 올라온 정태는 퇴직금을 투자한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이를 계기로 옆에서 물심양면 간호하던 한수는 장인에게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틈틈이 추진해오던 쿠키 사업이 주부들의 호응 속에 번창하면서 장인과 한수는 함께 일을 하게 되고, 그 동안 쌓여왔던 세대간의 차이는 진정한 가족 사랑으로 승화된다.

3) 이봉섭은 퇴출은행원으로 미용실 원장인 아내 수미 대신 요리하고 청소한다.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 하는 수미는 씩씩하고 화끈한 여장부다. 한번 화가 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줘야 속이 시원하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다. 그녀는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고 왜소하고 소심한 남편 봉섭은 남자주부다. 그래서 이 집에선 모든 게 정 반대다. 잠자리를 할때도 수미가 씩씩하게 “한번 해!”를 외치면, 봉섭은 깨갱 기가 죽어 어디론가 숨고만 싶어지는 것이다. 수미가 삼계탕이라도 끓여 놓 날은 미리부터 땀이 뻘뻘 날 지경이다. 아내의 압제에 시달리던 봉섭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로맨스가 찾아온다. 채소코너 은숙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아내와는 정 반대로 살갑고 다소곳한 은숙은 봉섭이 살아가는 한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녀 앞에만 서면 자신이 진정한 남자가 된 기분이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호랑이같은 아내 수미에게 들켜고 만다. 복날 개패뚫 봉섭을 두들겨 패는 수미. 늘씬하게 얻어맞고 집에서도 내쫓기지만, 은숙은 전문사기단의 일원으로 봉섭을 속인 터라 결국 봉섭이 돌아갈 곳은 씩씩한 아내의 품이었다(드라마 홈페이지 기획의도에서 인용).

드라마에서도 남성 전업주부 가정인 차상범 가정의 이야기⁴⁾만을 중심으로 하여 내러티브 구조를 파악해보았다. 남편의 실직으로 안정상태가 깨지게 되고, 가족들이 알게 되면서 원치 않는 취업을 강요해 갈등상황이 빚어지다가, 결국 전업주부가 되면서 다시 안정상태를 되찾게 된다.

앞서 살펴본 <앞집여자>의 경우는 이야기의 중심이 남성 전업주부에 있다기 보다는 결혼생활에서 ‘외도’라는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다양한 부부형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안정의 파괴도 ‘외도’로 시작되고 안정의 회복도 외도가 발각되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화만사성> <불량주부> <사랑은 이런거야> 모두에서는 남편이 실직하여 전업주부가 되면서 안정의 상태가 깨어지고, 남성이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에 의해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되다가, 결국에는 가족들로부터 전업주부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다시 안정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에서 안정을 깨는 힘은 남편이 실직으로 인하여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고, 안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은 남편의 복직이나 전업주부 탈출이 아니라, 남편이 전업주부임을 가족들이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안정을 되찾아 주는 힘은 소중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가 가지는 효과는 ‘남성 전업주부’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남성 전업주부 드라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남성 전업주부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의 해체를 보여주는 드라마를 대상으로, 그동안 드라마에서 지적되어져 온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드라마 전개에서 사라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남성 전업주부의 이야기를 총 18회에 걸쳐 풀어낸 <불량주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드라마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공식이 남녀 성역할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드라마 <불량주부>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아내 미나의 직장 라이벌로 등장하는 은미는 회사 입사에서부터 미나의 자리를 가로채더니, 미나의 보고서를 가로채기도 하고, 미나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미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한다. 미나와 은미는 건전한 직장동료가 아니라 시기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성차별적인 모습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여성들의 관계 및 심리에 대하여 진부한 화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도움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시선이 이야기 전개 곳곳에 드러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내 미나가 마케팅팀에 입사하게 된 것도 그 회사 기획실장인 선우 덕분이고, 미나가 유부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이야기가 나오지만 미나를 제품개발실로 보내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선우이다. 또한 미나가 대출이 필요할 때 보증을 서 준 것도 선우이고, 미나가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외연수의 기회

4) 차상범은 출판사에 다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특수분장사인 아내 대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선다. 실직을 하고도 집안에 알리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나가 일하다가 아내에게 들키게 된다. 실직한 사실을 아내는 알게 되지만,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그러나 곧 실직사실은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가족들은 냉랭해진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2번의 취업기회가 있지만 스스로 박차고, 음식점에서 식당일을 한다. 상범은 아내의 닭달에 식당일을 그만두고, 아이 학부모회도 참가하고 계도 하면서 가사일에 전담하며 아내 바가지도 굶곤 한다.

를 준 것도 선우다. 이 드라마에서 선우가 없었다면 미나는 회사에 다닐 수도 없었고 어려운 일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자 하는 드라마 곳곳에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불량주부>의 경우, 남성이 전업주부의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전개해 나감으로써 남성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성이 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너무 코믹하게 극대화하게 되면, 성역할 바꾸기는 그저 웃음 유발을 위한 하나의 소재로 머물뿐, 더 이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해체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전업주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을 희화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고착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5. 결론 및 논의

남성 전업주부를 중심이야기로 다루는 드라마들은 대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해 부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내러티브 구조가 남성 전업주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바로 잡아진다고 해도, 그 상대방에 있는 남성의 이미지가 올바르게 묘사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역할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줄기는 가부장적 남녀 성역할의 타파이면서, 세부적인 작은 이야기 줄기는 구태의연한 가부장적 관습에 기대어 이끌어진다면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남성 전업주부 드라마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물유형 설정이나 이야기 전개구조 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개에 세세한 부분까지 가부장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남녀가 타고난 성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평등하고 건강한 남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건전한 가족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페미니즘 관점에서 대중문화물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여성이미지의 왜곡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었었는데, 본 연구는 남성이미지의 변화된 모습을 분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변화된 남성이미지의 묘사가 사람들의 성역할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찰은 고정적인 남녀성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성역할에 대한 담론의 전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문화물과 남녀성역할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논의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극단적인 전환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물에서 성역할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앞으로 남녀 성역할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문화물 제작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강경하(2001), “텔레비전 시트콤에 나타난 여성상에 관한 연구: 국내 TV방송 3사 프로그램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익희·하윤금(2001), 텔레비전에 나타난 직업의 성정형화에 대한 연구 (텔레비전 모니터 보고서2001-2), 한국방송진흥원.
- 김명혜(2001), “쾌락주의와 공모적 웃음의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프로그램/텍스트》, 제5호, pp. 87~109.
- 김명혜·김훈순(1996). 여성이미지의 정치적 함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8호, 203~248
- 김선남(1997). <매스 미디어와 여성>. 범우사
- 김선남·장해순·정현욱(2004). 수용자의 드라마 여성이미지에 대한 수용행태연구. <한국방송학보> 18호, 76-115.
- 김양희·민인철(1996). <대중매체의 여성차별지표개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김양희·김홍숙(2000). <기업내 남녀 리더 및 리더십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훈순(역),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나남, 1994
- 남명자(1984). 텔레비전 드라마에 표출된 한국 여성상에 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17호, 71-117
- 송유재(1990). 여성과 매스 미디어. <방송연구> 9호, 217-238.
- 심훈(2005).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분석: MBC의 <시사매거진 2580>과 CBS의 60Minute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286~313
- 안선경(2002), “TV 시트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MBC 시트콤 <연인들>의 사례 분석”, 《커뮤니케이션연구》 제17집, pp. 119~154.
- 양문희·강형철(2005). 텔레비전 드라마의 직장내 여성관리자 및 경영자 묘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95~123
- 유옥란(2004). 경제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 <아시아 여성연구>, 43호, 237-267
- 윤정주(2001), “시트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와 그 신화의 의미구조: SBS-TV <순풍산부인과>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이미정(2003).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수연(2002).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텔레비전 모니터 결과 보고서>. 여성부
- 이수연·김양희(2001). <성차별 개선을 위한 텔레비전 모니터 결과보고서>. 여성부
- 이희승(2004). 여성 조폭영화의 신화: <조폭 마누라>의 내러티브 분석, <한국언론학보>, 48호 3권
- 정채기 외.(2000).<남성학과 남성운동>. 동문사
- 조경순·이신자·김호원(2004). 성차와 리더십. <아시아 여성연구>, 43호, 269-311
- Bathrick, Serafina(1984), Mary Tyler Moore Show: Women at Home and at Work,

- Critiquing the Sitcom: A Reader, ed Joanne Morreale(2003), New York: Syracuse.
- Chatman, Seymour(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2003),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론》, 서울: 푸른사상.
- Haralovich, Mary B.(1989), "Sitcoms and Suburbs: Positioning the 1950' s Homemaker", Critiquing the Sitcom: A Reader, ed Joanne Morreale(2003), New York: Syracuse.
- Feuer, Jane, Genre Study and Television, in Allen, R. C.(ed.),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1987), 김훈순 역(1992),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울: 나남.
- Henry, Matthew(1994), The Triumph of Popular Culture: Situation Comedy, Postmodernism, and , Studies in Popular Culture 17, No.1 , 1994, pp. 85 ~ 100.
- Meehan, Diana(1983). *Ladies of the Evening: Women Characters of Primetime Television*, Metechen, N.J.: Scarecrow Press.
- Mellencamp, Patricia(1986), Situation Comedy, Feminism, and Freud: Discourses of Gracie and Lucy, Critiquing the Sitcom: A Reader, ed Joanne Morreale(2003), New York: Syracuse.
- Modleski, Tania(1982).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Hamde, CT: Archon Books.
- Morowitz, Laura(1998), From Gauguin to ,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 spring 1998, pp. 2 ~ 11.
- Real, Michael(1989), Structuralist Analysis 1: Bill Cosby and Recoding Ethnicity, Critiquing the Sitcom: A Reader, ed Joanne Morreale(2003), New York: Syracuse.
- Rowe, Kathleen K.(1990), : Unruly Woman as Domestic Goddess, Television: The Critical View 5ed., ed Horace Newcomb(1994),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Dorothy(1978). "A Peculiar Eclipsing: Women's Exclusion from Man's Cultur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Quarterly*, 1, 281-295.
- Wells, Paul(1998), Where Everybody Knows Your Name: Open Convictions in Closed Contexts in the American Situation Comedy, Because I Tell a Joke or Two: Comedy, Politics, and Social Difference, ed. Stephen Wagg, New York: Routledge.

<저널>

중앙일보. 2004-07-21. "내직업은 집안 일" 남자 '주부' 12만여명

경향신문. 2004-07-21. 가사전담 남편 늘었다

과학동아. 2004-06. 남성은 성격짱, 여성은 직업짱 선호

한경비즈니스. 2004-05-02. 통계로 본 우먼 파워..출세 女 외조 男

뉴스메이커. 2004-06-04. [가정환경보고서] "아줌마들과 수다 떨고 장도 보죠"

정채기. 2003-06-22. 남자 · 아버지의 눈물, 그 실상과 허상! (딸사랑 아버지 모임 자료실)